



“혼인 전부터 때렸다” 75%

오재호/한국부부문화연구원장, KBS-2R “밤을 잊은 그대에게” MC

다

인생활 불과 1년 3개월만에 상해진단서 열 일곱 장을 들고 이혼법정에 나타난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법정에 나왔습니까?”

“차차 좋아질 줄로 알았어요”

“무슨 이유로 남편이 때리던가요?”

“혼인 전부터 때리기 시작했어요. 우린 동거를 했는데 첫달 술마시고 들어오더니 뺨을 때리더군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려니 하다가 이 모양이 풀이 되고 말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만일 혼인 전에 손찌검을 할 때 그 사람과는 절대 혼인하지 마십시오.

1999년 5월 ‘형사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혼인 전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혼인 후에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통계는 무려 75%나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정폭력은 무조건 이혼 판결을 받습니다. 또 폭력으로 고쳐질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할 때 기다리지 말고 이혼법정으로 나와야 합니다.

혼인 전에 손찌검을 행사하는 상대와는 하늘이 무너져도 혼인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그런 사람은 혼인 후에도 배우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 “세뮤얼 비서”박사는 가정폭력은 일종의 진행성 정신질환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병적인 자기애(病的自己愛)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가 폭력을 휘두르면 그 아들도 폭력을 행사한다”는 통계가 무려 87%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전에 ‘집안을 보라’는 말은 그 집안에 돈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가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부모의 혼인생활을 살펴 보라’는 뜻입니다. 결국 손찌검은 그 부모가 가르칩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혼인생활은 십상 그 부모를 닮아갑니다.

게다가 혼인 전에 성관계를 가졌을 때 무려 94%가 가정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는 성 관계를 가지면 그 남자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여성들의 전통적 정조관념과 ‘너는 이젠 내 것이다’라는 남성들의 소유의식이 맞아떨어진 경우이고, 둘째는 혼전구타행위를 여성 쪽에서 이해하려는 또는 이해해야 한다는 오랜 전통적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것은 20대 젊은 여성들의 반응입니다.

‘사랑한다면 성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라고 응답한 여대생이 무려 89%입니다. 30대는 34%, 40대는 12%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든 것일까요?

아무튼 결과야 어쨌든 몸을 함부로 허락한다는 것은 분명 여자 쪽에 큰 손해를 입힙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시들게 만듭니다. 그래도 몸을 함부로 주시겠습니까?

그 결정은 당신 스스로가 내려야 하고 그 책임도 당신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